



제2367호 2019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당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말이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요”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마치 하느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이러한 오해 안에서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이런 오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해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이 파멸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의인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식으로 계속 하느님께 매달리고,(마치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듯이!) 하느님께 서는 이를 받아들인다.(창세 18,27-32)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을 때, 모세의 간청으로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말이다.(탈출 32,1-14)

성경은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아니라,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죄 없으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온 세상과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신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고백하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해 우리의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신다.(골로 2,14)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 환호송이 노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전해진 유일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다룬다. 주님의 기도는 그 내용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기도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지만, 우리 또한 그 계획에 동참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수많은 예언자와 제자들, 교부들, 성인들을 비롯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된다.

주님의 기도는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상황에 놓일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기도였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유혹을 경험하며 때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비록 시험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저 수동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간청하는 가운데 그 계획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리 는 진정한 자세일 것이다.



허기원 마르첼리노 신부 | 중동분당 보좌

주일 진례

- 입 당 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 본 기 도**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창세 18,20-32
- 화 답 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제 2 독 서** 콜로 2,12-14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 복 음** 루카 11,1-13
- 영 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공주님을 정말 사랑하죠? – 그래!
안고 싶죠? – 그래!!
행복하게 해줄 거죠? – 그래!!!
그럼 제발! 제발! 부드럽게 행동해요!!! (영화 슈렉)

우리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똑같이 잘나지 않은 이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잘나지는 않았지만 악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잘난분’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배우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매일, 매주일 기념하지만, 여전히 그 길은 낯설기만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막연한 의욕에 나서 보지만 금세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잘난 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난 척은, 괴리감에 빠지게 만들거나 가면에 만족하며 안주하게 만들 뿐입니다. 늘 반복해서 죄로 기우는 우리에게 ‘잘난분’께서는 우리가 후퇴한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되물으시며 우리 스스로 갇아내게 하십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다시 열어주시고 되새겨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는 ‘잘난분’의 길을 따라갑니다. 매일 매일이,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총의 하루입니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 예, 주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 예, 주님!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

오늘도 우리는 세 번 다짐을 합니다. 예,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어린이농부학교 모집 안내

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인 경험으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정 : 8월 9일(금)~11일(일)
장 소 : 합천자연학교
참 가 비 : 형제 1인 7만원, 개인 10만원
학 년 : 4~6학년(2박 3일 동안 신나게 뛰어놀 초등학생)
인 원 : 20명(7월 31일까지 입금 선착순 마감)
계좌번호 : 농협 805058-51-039645 마산가톨릭농민회
전화번호 : 055-582-7010~2, 팩스 055-582-7009
담당 김경옥 사무국장 010-9312-7470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형제는 용감했다 2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안드레아 사도나 요한 사도를 이야기할 때 그 형을 먼저 들먹거릴까요? 물론 야고보 사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베대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생명을 건네준 아버지기에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라고 해서 동생에게 무얼 해준 것도 없이 꼭 앞자리에 서 거들먹거릴까요?(물론 제 형제 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몇해 전에 교구 행사를 마치고 신부님들과 함께 제의실을 나오는데 한 자매님께서 저를 보고는 쏘아붙이듯이 “우리 신부님은 강론은 잘해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생뚱맞아서 “저, 누구신데...” 물으니, “우리 본당 신부님은 백** 신부님이예요.”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교구에 백 신부가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형뿐이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물어 보았습니까?! 왜 형제지간에 마음 상하게 이간질을 시도하십니까? 특하면 “형만 한 아우 없다”는 등 “똥물도 파도가 있다”는 등 형과 동생을 비교합니다. 형은 형대로 그 삶이 있고, 동생은 동생대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형제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형은 어떤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어머님, 아버님들 제발 형제간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격 엇나갑니다. 동생이 형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따라가기가 힘들죠. 동생님들 제 말이 맞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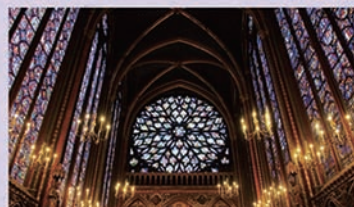
가톨릭을 제대로 알기 위한 지적 독서의 첫걸음!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왜 그것을 믿을까?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해답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가톨릭시즘』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자료와 자세한 설명으로 가톨릭 신앙의 지적 깊이와 신비를 소개한다.

뛰어난 학자이자 인기 있는 작가인 배런 주교는 여러 예화와 인물, 건축과 미술, 전례와 기도, 문학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을 신앙의 진지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가톨릭의 매력으로 초대한다.



집안 살림은 꿀도 보기 싫어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고 시절 친한 친구의 오빠와 결혼했습니다. 6살 연상인 친구 오빠는 항상 너그러웠고 친구의 부모님은 그럴 수 없이 교양이 있어서 늘 잘해드리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주부로 사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대해 시부모님은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몸을 아끼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같은 가게에서 일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만든 점심을 가게로 날랐습니다. 간혹 퇴근하시다가 손주가 보고 싶다며 들르시는 날은 저녁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집 살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와 생신상 차리기는 물론 시부모님 계모임 준비까지 제게 넘어왔습니다. 칭찬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육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심지어는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겨가며 시댁 행사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누이인 친구는 제가 두 집 살림에 허덕대는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하기는커녕, 친절 오면 으레 제가 밥 차려주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전부터 이게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두 집의 영락없는 부역대기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늘 방치되어 TV,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들을 닦달하고 혼내며 고함지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개선책을 찾자고 하면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당신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라는 대답만 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오빠는 간 곳 없고 무심한 남편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집안 살림은 꿀도 보기 싫습니다. 그저 누워서 잠만 자고 싶고 아침에도 눈을 뜨기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저를 그저 가사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높군요.

전형적인 우울 여성의 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들도 내 마음 알아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남편과 시댁 어른들께 정성을 다했군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힘들어도 군소리하지 않는 착한 며느리로서만 여기고 좋아하셨군요. 헌신적인 수고로움을 몰라주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지 않는 시댁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고 깊군요. 그동안 꺾꽂 눌러두었던 억울하고 무시당한 감정들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군요. 마음 씹씹이가 워낙 순수하고 진실하여 좌절감이 컸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에서 쌓은 불만이 스트레스가 되어 차곡차곡 쌓였지만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군요. ‘내가 왜 이리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잘하려고 애썼을까?’, ‘왜 피도 없이 어리석게 행동했을까?’라고 자기 비난을 했을 거고, 또 ‘내가 죽어 없어져야 이 사람들이 내 사정을 알고 정신을 차릴 거야!’, ‘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절망적 생각도 많이 했겠지요. 이런 자기 비난이나 절망적 생각은 자신을 더욱 우울의 늪으로 밀어 넣습니다.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당장 이 사정을 남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문가를 찾으세요. 시댁 어른들께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환자처럼 지내기를 권합니다. 두 달 동안 아이들은 어른들께 부탁하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말고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매일 점심, 저녁을 남편과 외식합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후에는 남편과 자녀만 챙기세요. 아직 정정하신 시부모님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도록 두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해요.



형제님 대자들은 다 잘 있습니까?

강희근 요셉 • 시인

최근 필자는 <대자>라는 제목으로 평범한 시 하나 쓴 일이 있다.

“주일 미사 마친 뒤
한 교우가 형제님 대자들은 다 잘
있습니까 물어왔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저의 대자들 중에 잘 챙기지
못한 사이 어디로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사람
주일 문을 닫아 걸고 외인처럼 사는 사람
무슨 이름 모를 일에 깊이 빠져든
사람,
한 사람 챙기는데 또 다른 사람
피곤한 얼굴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아, 형제님 대자들은 다 잘 있습니까
이리 대부가 부실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물어왔다”

필자는 시 뒷부분에서 필자도 챙기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고 필자도 부끄러워진다고, 이제 부터라도 기도하며 챙겨야 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런 뒤 기억나는 대자들을 위해 기도 한 줄씩 바치고 대자 찾기에 나서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문득 몇해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대자 두 사람이 먼저 떠올랐다. 그 두 사람은 친구인데 영세를 뒤에 받아 대자가 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011이나 016으로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가 뜨기 마련이다. 이리저리 연고를 찾고 이사 간 곳으로 보이는 성당의 사무실에 연락도 하고 하여 그리운 두 대자를 찾았다. 이산가족(?) 찾기 1단계는 성공이었다.

찾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두 대자의 신앙이 성공한 경우인지라 이 대부가 그 성공을 언덕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자가 잘 산다고 하여 대자 대부 간 신앙적 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로서의 응분의 견책 부분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견책을 생각하며 필자는 필자의 영세대부님과 견진대부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영세대부님은 천국 가 계시고 견진대부님은 정년이후 시흥에 가 사신다. 여전히 다정하며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이다. 어떻게든 저리 자애로울까? 거울을 본다. 필자는 아무리 해도 자애 이전, 미소 이전이니 성서를 들거나 기도문을 들고 대자를 만나든지 어쩌든지 해야겠다. 얼굴이 이렇더라도 대자 대부 관계는 교회가 맺어 주었으니 그사이에는 물소리가 흐르든지 아니면 종소리가 흐르든지 해야 할 것이다.

필자에겐 근간에 두엇 대자들 내외분 합동으로 주일 새벽 미사 후에 갖는 ‘콩나물 해장국집’에서의 모임이 있다. 행운이라 하겠다. 이제부터는 행운 밖의 행운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억할 사제

8월 3일(토) : 故 장병화 요셉 신부



8월 3일(토) : 故 박주선 안토니오 신부



하느님 안에서의 휴가

일 시 : 8월 8일(목) 15:00~10일(토) 15:00
2박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대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가비 : 16만 원

문의 및 신청 : 055·221·1891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주교관 주방 근무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1명

특이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만 65세 정년)
파트타임 근무 가능한 분(면접시 조정)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주민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각 1통
접수마감 : 2019년 7월 3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면접일자 : 개별통보

문 의 : 사무처 055·249·7016~17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구·본당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8월 4일(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암센터 지하1층 천주교 원목실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 습 : 매주(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 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위원회·기관·단체

■ 228차 남성꾸르실로

일 시 : 8월 1일(목)~4일(주일) 3박4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055·249·7113

■ 레지아 평의회

일 시 : 8월 4일(주일)

장 소 : 교구청

문 의 : 055·249·7115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월) 10:00 하대동성당

문 의 :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토)

장 소 :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198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8월 30일(금) 19:00~9월 1일(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차 쉼신주말 : 9월 21일(금)~22일(주일)

● 199차 ME 주말 : 11월 15일(금)~17일(주일)

수도회

■ 성모승천 전례피정

일 시 : 8월 13일(화) 16:30~15일(목) 13:30

장 소 :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 19만 원(대구은행 504-10-102896-6(재))

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후 입금

문 의 : 054·971·0722, 010·9877·4739

기 타

■ 2019년 2학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 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 의 : 031·360·7635, 010·7470·7966

마 감 : 9월 30일(월) 인터넷 '사이버성경학교'검색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cac.or.kr

품격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8월 20일</td> <td>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td> <td>11일</td> <td>350만원</td> </tr> <tr> <td>8월 20일</td> <td>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td> <td>12일</td> <td>429만원</td> </tr> <tr> <td>10월 12일</td> <td>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td> <td>13일</td> <td>399만원</td> </tr> </table>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본도여행사 02·852·8525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만원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길모통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9/6~9/15 (10일, 298만원) 모통이산순례단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통이서포터즈동행, 일정의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모통이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 055·293·5605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원 ▶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만원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2019년 9월 6일(금)~10일(화)
입학상담 : 064·805·9689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펜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 **ICPE 선교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

일 시 : 8월 10일(토)~15일(목)
장 소 : 예수성심영성센터(부산 금정구)
강 사 :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문 의 : 정종철 다마스 010·7535·9111

■ **2019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일 시 : 10월 14일(월)~18일(금)
대 상 :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
(귀국한지 1개월 이상)
문 의 : 02·953·0613
주 관 :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주 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창원지구 일일 낚피정

일 시 : 8월 5일(월) 13:00~15:30
장 소 : 반송성당
주 제 : 내적 치유
강 사 : 이영숙 베드로 수녀
미 사 : 최재상 마리아 신부
문 의 : 성령봉사회 010·9664·1813
* 미사준비



명례성지 건축공사 입찰공고

공사명 : 수녀원 및 순례자의 집 신축공사
현장설명회 : 2019년 8월 6일(화) 14:00
장 소 : 명례성지
입찰 및 견적서 제출 : 8월 16일(금) 14:00까지
문 의 : 055·391·1205
* 세부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고



우리농나눔터(생활공동체) 물품 안내

가정에서 “먹고, 쓰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식탁	유정란	3,700원
	현미유	6,200원
주방	감식초, 현미식초	8,000원
	주방세제(펄프)	5,000원
욕실	한뭇삼푸(머리-발까지)	30,000원
	맑은샘(세탁)	7,500원
	섬유 유연제	5,600원

우리농나눔터를 매 주일마다 방문해 주세요.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7월 29일(월) 19:00	월남동성당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다	김대우 신부(모세, 수원가톨릭대학교)	김대우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7월 29일(월) 19:00	반송성당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	정홍식 신부(마르코)	정홍식 신부	010·9969·5340
진주지구	7월 29일(월) 19:30	옥봉성당	부활 신앙의 삶	이우진 신부(사도 요한)	이우진 신부	010·9644·4224
청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공로반외방선교회	8월 4일(주일) 10:00	서울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 kmsvocation@daum.net			

9월 순교자 성월 특선
베트남 북부+중부 성지순례
<9/23 또는 9/30 출발 4박6일>
특별가 120만원
* 베트남항공 국제선/국내선 포함, 준족금 호텔

북부: 하노이 대성당, 서 킴엔 대성당,
순교성지, 팻지엠 대성당, 시토회, 하롱베이
중부: 라방/짜꾸우 성모발현지, 피부 순교성당
순교자 안드레아푸엔 성당, 다낭/호이안투어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투어찬스 Tel. 055-264-2046
M. 010-2992-478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055·605·6297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9/29, 10/23 **나가사키 4일** (94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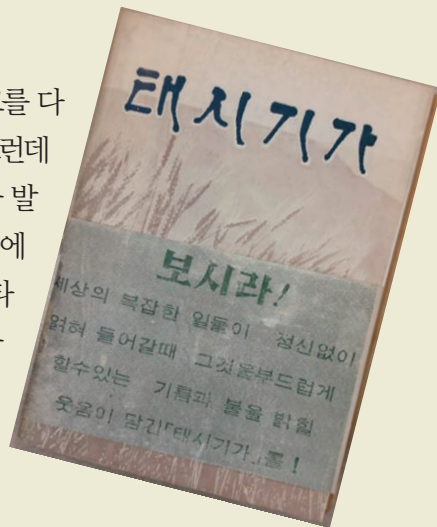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태시기가』

황광지 가타리나 • 수필가

50년 전 태시기 부제의 죽음

1969년 나는 대구에서 여고2년생이었다. 고1때 네 살 터울 오빠가 광주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8월 15일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라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꼭 일 년이 지날 무렵인 8월 10일 이태식 부제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주위가 발각 뒤집혔다. 그리고 가톨릭신문사에서 유고집 『태시기가』가 출간되었다. 당시 대구에서는 그 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특히, 우리 가족들은 죽은 장남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해 끼어끼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집 책꽂이에 꽂혀있던 표지가 50년이 지났지만 눈에 선하다. 마산교구가 설립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던 때라 여전히 대구대교구에서 이태식 부제의 죽음을 더 기렸나 보았다. 신자들이 “태시기가, 태시기가”라고 자주 불렀다.



고성본당 이태식 사베리오 부제

8월 10일이 이태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부제의 50주기이다. 사제 서품을 몇 개월 앞두고 심장마비로 급사한 그는 고성 이화공원묘지에 잠들어 있다.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러 『태시기가』란 책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연륜이 좀 쌓인 마산교구나 대구대교구의 오래된 신자들은 묵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대구대교구 조환길 주교님은 고1때 우연히 이태식 부제의 유고집 『태시기가』를 읽고, 사제가 되기 위해 자신을 다듬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 사제의 길을 택했다고 매스컴에 밝혔던 적이 있다. 가슴에 이태식 부제의 삶이 각인되어, 50주기를 앞두고 조환길 주교님은 이태식 부제의 고향 마암면을 방문하여 신자들과 미사를 올리고 이화공원묘지를 참배했다고 한다.

이태식 부제의 고향은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위계마을이다. 1960년까지는 마암공소가 있었던 곳이다. 이 마을에서 나서 자란 이 부제는 마암초등학교와 고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소신학교인 성신고등학교와 가톨릭대학교를 마치고, 신설 마산교구 소속으로 1968년 부제 서품을 받았다. 이듬해 청년들과 해양훈련 도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 교회나 이웃에 큰 충격이었다. 그를 아꼈던 신학교 동기들은 그의 일기와 메모, 편지 등을 엮어 유고집 『태시기가』를 펴내게 되었다. 사제로 향한 소망과 함께 신학교생활, 즉 교지편집과 약기연주, 포크댄스 등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미래의 사목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사제의 길로 나아가는 힘든 과정과 마지막 선택의 다짐 등이 진솔하게 담긴 글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여전히 태시기 꿈을 가꾸는 위계마을

이 부제의 생가 터는 죽마고우 이상갑 토마스 형제가 사들여 친구의 뜻을 기리고자 2011년 ‘위계아카데미’를 건축했다. 여기서 교리강좌와 피정, 동네독서실과 사랑방 역할,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갑 형제는 둘도 없는 친구 태시기가 ‘이웃에 대한 복음전파의 꿈을 못다 이룬 것이 안타까워, 고향으로 돌아와 대신 그곳을 지키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나는 50년을 회고하며 감회에 사로잡혀 다시 그 책을 읽고 싶었다. 아쉽게도 가톨릭신문사에 『태시기가』는 딱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아 빌려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나마 신문사에서 표지만이라도 잘 찍어 보내줘서 마산교구 신자들에게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故 이태식 사베리오 부제의 묘소를 참배한 조환길 주교(중앙), 친구 이상갑(좌), 동생 이경식(우)